여름배추 생산 25% 감소…'금배추' 반복되나

연작 피해 등으로 재배 포기…3418ha 그쳐
정부 "2만3000t 비축 등 안정적 공급 최선"

올여름 배추 생산량이 평년 대비 2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배추'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추 비축과 조기 대응으로 가격 급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은 약 23만6000t으로 평년보다 2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름철 배추 수급난을 겪은 지난해보다는 6% 증가한 수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배추 재배면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여름 배추 재배면적은 약 3418ha로, 전년, 평년보다 각각 8.8%, 23.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연작 피해, 선출(배추가 일찍 꽃대를 올리는 현상) 발생, 고온으로 인한 재배 부담 등이 재배 포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식기 배추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농가의 작목 전환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대규모 비축과 유통 조절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봄·여름 배추 수매와 저장을 포함해 총 2만3000t을 비축하기로 했다.

비축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수급 불안 시기나 추석 성수기 등에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또한 병해충이나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체 파종이 가능하도록 예비묘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250만주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고온과 가뭄 여파로 배추 생산이 급감하자, 중국산 배추 수입과 유통 할인행사를 병행하며 대응한 바 있다. 당시 배추 가격은 평년의 두 배 수준까지 치솟아, 일부 식품업체가 포장김치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배추 가격 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소비자보호 다짐
'고객 중심 상호금융' 결의대회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를 통해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와 양질의 금융 서비스 제공 △고객 민원 최우선 해결 및 대고객 불합리 제도 개선 △금융사기 피해예방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금융기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상의, 지역 가전산업 활로 모색 '온 힘'
8개 기업 3개 컨소시엄 협약…신제품 개발 등 추진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가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 가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애로 해소를 통해 가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광주상의를 중심으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디자인진흥원이 함께 참여해 컨설팅,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개선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 가전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총 3개로,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세부적으로 ㈜다옴전자-이에스글로벌(주)-㈜엠엔케이(공급기업), ㈜브이산업-㈜한새, ㈜프리아이디어-윈디-㈜라온마케팅(공급기업)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선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융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의 밀착 컨설팅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제품화, 판로 개척 전략을 수립한다. 이어 '가전내일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개선, 브랜딩 등 신사업 확대와 제품 출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성과 공유·공로자 시상 등
"납세권익 보호·신뢰 구축"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50주년을 맞은 세무사회의 성장과 발전, 성과에 대해 공유하면서 지역상공인·자영업자 등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세공무원과 회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장, 공로상 등을 수여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50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1세무사 1나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사회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지난 1975년 1월 26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광주세무사회는 광주와 전남, 전북에 15개 지역세무사회와 9개 분과, 880여명의 회원 규모로 성장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최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제2회 전남서부권 HR+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인재육성 '총력'
HR+세미나 성료…지속가능 위기 대응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최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제2회 전남서부권 HR+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서부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해 '산업계-학계-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부문' 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전남형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이재희 목포지청장과 정현택 목포상공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남연구원 김현민 부연구위원의 '전남 외국인력 현황과 정책 방향', 한국공학대학교 정동열 교수의 'AI시대에 따른 전남형 인재양성 전략'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또 조윤형 조선대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로 산업계, 학계 등 12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패널토의에서는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HD현대삼호, 전남도 등 지역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기업 인력 현황과 인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송대웅 기자

'역대 최고 경쟁'…지역 백년소상공인 9곳 선정
광주 현대미용학원·목포 중앙횟집 등

42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현대미용학원, 음식명인 김상복씨가 운영하는 목포의 민어요리 전문점인 중앙횟집 등 광주·전남지역 9개사가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백년가게 50개사, 백년소공인 5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모두 785개사가 신청, 7.9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9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백년가게는 광주5개사(중앙식당 동곡점, 염주명가, ㈜광신푸드모아, 현대미용학원, 내가본미용실), 전남 2개사(중앙횟집, 태창유통)이며, 백년소공인은 전남에서만 2개사(유민식품 농업회식법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 유한회사)이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올해로 42년의 업력을 자랑한다.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목포 민어요리전문점 중앙횟집도 빼놓을 수 없다. 중앙횟집은 37년의 업력으로, 지난 2016년 목포 음식명인으로 지정된 김상복씨가 대표로 있다.

흔히 민어찜(회), 세발낙지, 홍어삼합, 꽃게무침, 갈치조림을 '목포 5미'라고 부른다. 중앙횟집은 이 중 여름철 대표 보양식이자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진 민어코스요리를 맛깔스럽게 요리하며 전국 식객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광주·전남의 백년가게는 141개사, 백년소공인은 87개사로 늘었다.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12개) 신청시 가점(3~5점)과 우선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 등이 제공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마다가스카르 발전소 정비사업
한전KPS, O&M 계약 2년 연장

한전KPS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발전소 운영 및 정비(O&M) 사업을 오는 2027년 8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동부 무라만가(Moramanga) 지역에 위치한 암바토비 발전소는 니켈 제련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기간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마다가스카르 현지 통화에 해당 발전소 이미지가 삽입될 정도로 상징적 중요성을 갖는다.

지난 2009년 8월 마다가스카르 발전소 O&M 사업에 첫 진출한 한전KPS는 2017년 9월 장기 O&M계약을 맺는 등 15년 이상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 연장은 한전KPS가 쌓아온 해외 사업 역량과 현지화 전략 및 기술 신뢰도가 집약된 결과로 평가된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핵심 전력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계약 연장을 계기로 아프리카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에도 속도를 내 향후에는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축적한 O&M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양경제청, 인니서 투자설명회
현지 로펌과 법률서비스 협약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핵심소재, 에너지, 물류 등 글로벌 기업 2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투자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더헝 아코로펌, 중국 베이징 더헝 레티오센터 간에 '인도네시아 글로벌 기업의 한국투자발굴과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위치한 바탕(Batang) 특별경제구역의 인드리 레스빠띠 마케팅개발본부장과 만나 양 기관 간 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개발경험 공유, 교육. 인적교류 등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로또 7 9 11 21 30 35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0억5000만원

제117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11, 21, 30,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0억521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9명으로 각 499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33명으로 12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54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4만6919명이다.

연합뉴스

미국 철강 파생제품 관세에 가전업계 비상
38억달러 시장 '흔들'…현지 생산·가격 인상 등 대응책 촉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등을 새로 추가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관세 사정권에 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는 즉각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두 기업 모두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으나, 현지 생산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에 국한돼 있다. 이번 관세는 미국산 철강을 써야 예외인데, 현지 생산 가전에서 미국산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주요 제품은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추가 관세 부과가 발표된 항목들의 대미 수출액은 2024년 연간 기준으로 3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2.8%를 차지한다. 품목별로 냉장고의 비중이 높고, 이어 건조기와 세탁기 순이다. 다만 한국 가전업체들은 멕시코 공장을 이용해 미국에 수출(2억4000만달러)하는 비중이 높아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금액은 약 38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전제품은 철강 비중이 큰 제품군인 만큼, 제조원가 상승과 함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